

우리 화석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14)

3.2. 화석산업의 시기별 성장과 구조변화

3.2.1. 60년대말

1967년경부터 본격 출현한 우리나라 화학석유산업은 1968년 부가가치창출에서 국민경제의 2.2%를 점하게 됨으로써 60년대초 0.1% 정도이던 매우 미미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60년대말 화석생산이 본격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생산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 상당한 정도 화석제품의 수입이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

<표 3.1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화석제품의 수입은 60년대말 생산시설 증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그 이전 국내생산시설이 빈약했던 시절에 비해 보면 증가율 면에서 크게 둔화된 것이다.

<표 3.12> 화학석유류 수입

(단위 : 천 달러)

구 분	1967	1969
화학석유	16.805	22.845
합성 필라멘트	27.778	34.686
기타	-	-
총계	64.864	84.258

자료 : 한국의 산업, 1971

화학석유공업은 다른 석유공업에 대해 원료를 공급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

로 국내수요는 소모방공업, 방모방공업, 면방공업, 로우프공업 등 여러 곳에 있다. 그러나, 그런 것 중 이때 중요했던 것들이 메리야스공업에서의 각종 의류생산 및 모방공업에서의 순화섬 및 혼방방적사생산이었다. 이들 화섬가공 섬유공업은 거의 모두 수출에 진력하는 산업이었으며, 이들을 통하여 그 자체로써 직접 수출에 팔목할 정도로 참여하지 못했던 화섬산업은 간접적으로 수출증대와 산업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화섬공업의 주원료는 석유화학공업으로부터 조달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중화학공업화를 시작하기 이전이었던 이 시기에 국내로부터의 원료조달은 있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때의 원료조달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표 3.1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들 원료의 수입은 이 시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제품의 수입이 70년대 초반 중화학공업화를 계획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표 3.13> 주요화섬원료의 도입

(단위 : 톤)

구 분	1967	1969	1970
화학펄프	-	5139	6192
카프를락탐	2050	14615	22946
A.N. 모노머	4144	13807	18023
폴리프로필렌 레진	-	1580	180

자료 : 한국의 산업, 1971

<표 3.14>는 주요 화섬사의 가격이 60년대 말 경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독점의 성격을 가졌던 비스코스 시장의 가격을 제외하

고 나면 이들 화섬사의 가격은 대체로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몇가지 요인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진다. 첫째, 국내 화섬생산이 시작되어 다소간 자리를 잡아가게 됨에 따라 화섬생산에 있어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표 3.14> 주요화섬사의 가격

(단위 : 원)

구 분	비스코스 90d(kg당)	나일론F 100d(kg당)	폴리에스테르F 75d(kg당)	아크릴 76's(kg당)
1967	39.900	1279	-	1560
1968	41.7222	1044	-	1508
1969	45.418	937	1653	1310
1970	52.001	815	1389	1168

자료 : 한국화섬협회

둘째, 화섬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외에 수입되기도 하였다. 특히 의류등의 수출용원자재로서 상당한 화섬제품이 수입되었고, 이런 수입분 중 일부는 이른바 원자재감모분 또는 기술소득으로 간주되어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수출업자가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었다. 이렇게 수입된 화섬제품은 국내 생산된 화섬제품과 경쟁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쟁이 국산 화섬제품의 가격을 한정시키게 되었다. 셋째, 비록 수입이 자유롭지는 않았으나 수입될 수 있는 화섬제품의 국제시장가격이 국내화섬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나일론을 비롯 여러 화섬생산에 있어 과잉시설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주요 수입선인 우리나라의 시장

을 놓치지 않으려고 덤핑을 자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바, 이것이 당연히 화성가격의 상향변동을 억압하게 되었다.

새로이 시작된 화성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전방에 있는 산업이나 후방에 있는 산업들과의 산업연관관계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화성산업이 새로 나타나 전방에서 석유화학공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 후방에서 많은 수요와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했다. 연관관계를 가지는 산업들과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따라 일본과 같이 계열화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가 이때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싶은 화성산업 중 일부의 입장과 국민경제 일반의 후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의 견해가 반드시 동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기업체가 몇 개 밖에 안 되는 화성산업 이지만 해외로부터의 경쟁을 계속 감지할 수 있었기에 그것이 화성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게 되는데 자극제가 되었고, 때문에 그것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하에서 화성산업이 성장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3.2.2. 70년대초 석유파동이전까지

새로이 탄생한 한국 화성산업내의 기업들은 거의가 영세한 것들로서 미국의 듀폰이나 일본의 토레이 등 세계적인 화성메이커의 생산규모에 뒤지고 있었으며 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규모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된 정도이었다. 이에 따라 70년대 초에는 화성산업에서 시설증대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생산능력의 증대가 수요의 증대를 일시적으로나마 앞지르게 되어 70년대초의 화성산업 평균가동률은 75% 내외에

지나지 않았던 정도였다. 비스코스 부문에서는 100%를 다소 초과할 만큼 높았던 반면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스테르에서는 50% 내외로 낮았었는바, 이러한 일시적 가동률 저하현상은 1972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해소되어 평균 가동률이 94% 정도에 도달하게 되었다.

1972년 상반기까지 화섬업계는 불황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다시 증설의 열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시설의 확장은 상당한 정도 국내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화섬업계가 화섬제품의 수출증대를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엔화절상이 예상되고 일본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하여 수출을 어느 정도 자제하리라고 예상했던 것과 비스코스 레이온등이 공해문제 때문에 선진국에서 생산되지 못하게 되리라고 보아 그러한 것의 생산을 대신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것이 수출증가를 예견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다.

앞의 <표 3.4>의 주요화섬의 생산 출하 재고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1970년을 계기로 하여 주요 화섬제품에 있어 생산이 내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화섬제품 순 수입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실상 1967년에 있어 총수요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84%에 이르고 있었으나 이것이 1970년에 들어와서는 49%로 떨어지게 되었고 1972년에는 35%로 크게 저하되었다. 그리고 이로써 화섬수입은 70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수출용수입이라고 성격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수입된 것에 더하여 국내 생산된 것도 점차 수출용으로 쓰이도록 성격변환을 이루게 되었다.

1969년과 1972년 사이에 총수급상에 나타난 변화를 품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출처, 한국의 산업 1973).

아크릴섬유의 생산은 수입량을 증가하여 그의 2.4배에 달하였으며, 나일론

의 생산은 1970년에 수입량을 증가하여 수입의 절대량을 거의 반으로 감소시켰고, 폴리에스테르섬유의 생산도 같은 해에 수입량을 증가하여 수입량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생산증대를 보였다. 폴리프로필렌 섬유생산은 1970년에 수입대체가 거의 완료되어 1970년에는 수입이 전무하였다. 단지 비스코스와 아세테이트 레이온사의 경우에 있어서만 생산이 크게 증가되지 못하여 수요의 증대를 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에 따라 수입량이 계속 확대되어 1972년 비스코스 생산량은 수입량의 반에 달하는 정도이었고 아세테이트는 수입량이 생산보다 약 35% 많았다. 여하간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라는 3대 섬유의 생산이 괄목할만하게 늘어났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것이다.

결국 이 시기는 화섬산업의 수입대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었고, 그에 따라 화섬산업은 외화가득에도 착실히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화학섬유의 원료는 수입해 조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즉 화섬생산이 늘어날수록 원료의 수입도 늘어났고, 그로써 원료 조달구조의 근본적 취약점을 노정하면서 원료 수출국의 가격인상에 따라 원가고의 압력을 피하기 어렵게도 되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하여 제2차 5개년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원료생산공장이 추진되었다. 그에 따라 아크릴의 주원료인 AN 모노머를 동서석유화학이 스켈리 오일(Skelly Oil)사와 합작으로 1972년 10월부터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폴리프로필렌섬유의 주원료인 PP 레진을 대한유화가 일본 마루베니이하다와 합작하여 1972년 10월부터 국내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앞의 합작회사의 주식을 1973년에 들어 한일합섬이 35%까지 소유하게 되어, 외국의 예에서처럼 화섬제조부문이 원료제조부문을 함께 장악하는 현상을 보이게도 되었다.

그러나 197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던 한국 카프를락탐은 이때까지 생산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일론의 주원료인 카프를락탐은 주로 수입될 수 밖에 없었다. 또 선경이 미국 허큘레스(Hercules)사와 합작하여 건설중이던 TPA 공장이나 삼양사와 한국폴리에스텔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동화학이 일본과 합작으로 건설하고 있던 TPA 공장은 미처 생산물을 내놓지 못해 TPA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폴리에스테르의 원료인 EG의 경우에는 공장건설 계획조차 없었다.

화섬의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되자 새로이 문제로 된 것이 이들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하는 화섬업체에 대해 이들 국내생산 원자재의 가격이 수출용 원자재로서 수입하는 해외로부터의 원자재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되겠다는 고려이었다. 이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 공급분의 가격은 수입 가격과 같게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내수용 판매에서 보충하는 이중가격제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이중 가격제 아래에서는 내수가격은 수입가격에 비해 높게 결정되기 쉬었다. 예컨대 1972년 10월 당시 아크릴로니트릴의 내수가격은 톤당 564 달러로서 수출용 원자재 공급 가격보다 83%나 높았으며, PP 레진의 경우에는 내수와 수출용 원자재 사이의 가격차가 43%나 되었다.

외화가득을 늘리고 원자재의 안전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 화섬제품 원료공장을 가지게 되었으나 당장 당면하게 된 것은 이중가격제이었고, 내수용원료를 쓰는 화섬업체의 채산성 악화이었다. 조세와 보조금을 자유로이 쓸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난제를 푸는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 내수용원료를 쓰는 화섬업체에 대해 감세를 한 것이었다. 즉 1972년 12월에 직물류세를 1973년말까지 면제하기로 하고 1974년말까지는 세율을 8%로 낮추어 이에 대응하였다.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수입될 수 밖에 없었던 원료들의 수입가격은 1972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다가 1973년에 들어서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물량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예컨대 카프롤락탐은 1972년말 톤당 430 달러 수준에서 1973년 4월에는 590 달러선까지 급등하였고, DMT의 경우도 같은 기간 중 톤당 380 달러에서 500 달러선으로 급등했다.

이러한 원료가격 폭등의 원인은 세계적으로 화섬제품에 대한 수요가 각국 GNP의 성장, 화섬소비의 증가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원료생산시설은 별로 증설되지 않은데 있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원료수출을 하던 일본이 공해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카프롤락탐등의 생산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차라리 다른 데서 수입해다 쓰려고 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화섬제품의 가격은 60년대말까지의 하락추세가 1972년까지 지속되었다. 해외에서의 화섬가격이 우리나라에서의 화섬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다가 1973년에 들어서면서 화섬원료의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폴리에스테르F 등의 가격이 오르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섬제품가격은 크게 보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국내에서의 화섬생산이 규모를 늘리면서 효율화를 꾀한 것과 물품세와 수입관세 등 해외시장가격 이상으로 국내가격을 올리는 인자들을 완화한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겠다.